

강력부 검사 오찬

민생 치안의 맨 앞에 강력부가 있어. 국민 신뢰 위해 노력하자

반갑습니다. 진작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KBS가 강력부 검사들의 얘기를 잘 취재해 내보내 강력검사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중 강력부 검사 일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데 첫 번째인 질서와 불법 횡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강력부 검사들이 잘 하면 국민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못 받고 있지만 검찰 중 민생관련 활동이 두드러지면 국민들의 검찰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잘 하길 바라고 강력부 검사들이 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약속드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당부 드리려고 초청했습니다. 일하면서 더러는 정치권의 비호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참고하려고 하니 직접은 아니더라도 넌지시 말해주면 실태를 깊이 파악해 소신껏 수사하는데 어떤 장애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